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24(금) ~ 2024.5.30(목)

제공일시 2024 06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24(금) ~ 2024.5.30(목)

제공일시 2024 06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4가지 ESG법안 통과-공급망실사법, 탄소중립산업법, 메탄규제법, 에코디자인규정 등

- 유럽연합(EU)은 이달 네 가지의 핵심 ESG 법안을 최종 승인했음. 해당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임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24일(현지시각) 이사회 문턱을 넘어 최종 승인됐음. CSDDD는 2027년부터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임
-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NZIA)이 27일(현지시각) 유럽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음. 넷제로 산업법은 유럽이 미국, 중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임
- 메탄 배출 제한을 둔 가스 수입법도 27일(현지시각) 최종 승인됐음. 이 법은 2030년부터 유럽의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메탄 배출량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업체들의 온실가스 누출을 줄이도록 하는 법임
- 에코디자인 규정이 최종 승인됐음.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요건을 담은 지침임

(임팩트는 2024.5.29) 송준호 기자

2. 미국도 전기 부족 심화... 정부가 나서 노후 전력망 현대화 나선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노후화된 전력망의 현대화에 속도를 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전력망을 연결하고 잇따르는 정전을 줄이기 위한 결정임
-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연방정부와 21개 주(州) 정부가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우선 기존 송전선을 고압선으로 교체해 새 송전선을 건설하지 않아도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

(조선일보 2024.5.29) 조재희 기자

3. 미국·EU 발빠른 규제 움직임에... 日정부도 AI 규제법 논의 착수

- 최근 EU가 세계 첫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된 가운데, 일본 정부도 AI를 둘러싼 법률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이 23일 보도함
-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개시함
- 회의에서는 AI를 둘러싼 인권침해나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이 거론됨. 규제 대상은 미국 등의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024.5.23) 경수현 기자

4. 美기술 기업들, AI관련 EU 당국과 협력... 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AI 제품이 EU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국과 협력하기로 함. 2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아일랜드 데이터 규제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함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두 최고 책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AI 모델 학습을 위해 기업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규제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5.29) 이용수 기자

1. 한-UAE “양국관계 최고 수준”... ‘60억弗 투자도 구체화’

- 윤석열 대통령이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나 작년 1월 이끌어낸 300억달러(약 40조원) 대(對) 한국 투자 유지를 점검하고, 그중 60억달러(약 8조 3100억원) 투자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올림
- 또, 중동 핵심 협력국인 UAE와 아랍국가 최초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양국 경제 협력 수준을 대폭 끌어올림
- 에너지·원자력발전(원전)·방위산업(방산) 등 핵심 분야에 이어 AI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이데일리 2024.5.29) 박태진 기자

2. 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선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 등에 대한 해운기업의 친환경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힘
-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는 금융, 친환경, 해운시황 분야에 대한 종합 컨설팅과 금융상품, 정책펀드, 보조금 등 지원을 연계해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됨
- 지원 대상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친환경 연료(암모니아, 메탄올, LNG 등) 추진선, 친환경 설비를 장착해 친환경 입증이 가능한 중고선 등임

(연합뉴스 2024.5.27) 김상현 기자

3. 라인야후로 다시 급부상한 플랫폼법... 규제 위주 정책에 업계 ‘냉가슴’

-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플랫폼 대기업들을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이들을 감시해 독점력 남용을 막겠다는 구상임
- 세계 각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과 달리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여전함

(뉴데일리 2024.5.28) 신희강 기자

4. 전력거래소, PPA 컨설팅센터 운영... “RE100 이행 지원”

- 전력거래소는 국내 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직접 PPA 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힘
- 전력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매주 첫째 주 수요일 서울 또는 전남 나주에서 PPA 컨설팅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김완홍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컨설팅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024.5.29) 차대운 기자

5. “전환사채 불공정 꼼수 막는다”... 금융위, ‘공시·전환가 조정’ 규정 변경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우선,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함. 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 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김.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역시 합리화함

(뉴스1 2024.5.27) 신건웅 기자

1. 펩시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HVO로 운송… 코카콜라는 혼합해 시험 중

- 글로벌 기업 펩시코(PepsiCo)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 전체에 수소 처리된 식물성 기름 연료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함
- 펩시코는 물류 솔루션 제공업체인 스토바트(Stobart)와 협력해 500만 리터의 HVO를 사용해, 자사 제품인 워커스 크리스프를 레스터에 위치한 유통센터에서 소매업체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CCEP)와 글로벌 음료 포장업체 볼 음료 패키징(Ball Beverage Packaging)은 1년 동안 운송 차량의 연료 일부를 수소 처리 식물성 기름(HVO)로 혼합해 사용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힘

(임팩트는 2024.5.29) 유미지 기자

2. 페덱스와 픽세라 글로벌, 희토류 업사이클하는 순환공급망 연합 출범

- 페덱스(FedEx), 픽세라 글로벌(Pyxera Global)을 포함한 기업들이 전자폐기물 채굴과 미국의 광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순환 공급망 연합(Circular Supply Chain Coalition)'을 시작했다고 24일(현지시각) 그린비즈가 전함
- 페덱스와 픽세라 글로벌이 주도하는 순환공급망 연합(CSCC)의 창립 파트너는 피닉스, 애틀랜타, 클리블랜드에 전자 제품이 재활용되는 물류 허브를 설립해,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임팩트는 2024.5.28) 홍명표 기자

3. 일본제철, 해상풍력용 후판강판 본격 진출… 2026년 대량 양산

- 일본제철이 해상풍력발전용 풍력발전기 기초로 사용되는 후판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닛케이가 27일(현지시각) 보도함
- 해상풍력은 가혹한 자연환경과 지진 대책 차원에서 선박이나 건설기계용보다 두꺼운 강판이 필요함
- 일본제철은 지금까지는 개별 주문으로 생산했지만, 오이타현과 치바현 제철소에 해상풍력용 후판강판 전용 생산라인을 설치해 2026년부터 양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제철이 두껍고 품질이 좋은 후판을 양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5.27) 김진웅 기자

4. 구글, MS 등 4개사, 자연기반 탄소크레딧 2천만톤 구매 계약 체결

-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세일즈포스가 2030년까지 최대 2000만톤의 자연기반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하고, 구매를 담당할 '심바이오시스 연합(Symbiosis Coalition)'을 공동으로 설립함
- 심바이오시스 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사들의 이 같은 구매 약속(AMC, Advance Market Commitment)은 자연기반 탄소 제거를 위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 사전구매계약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설정한 탄소 제거 목표치와 동일한 규모라고 밝힘
- 심바이오연합은 구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삼림과 맹그로브 복원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임

(ESG경제 2024.5.23) 김현경 기자

5. 셸 주주, 스코프 3 결의안 거부… 셸은 미국으로 본사 이전을 논의 중

- 지난 21일(현지시간) 셸의 연례 주주총회가 영국 런던에서 열림. 셸의 주주들은 행동주의 투자자 팔로우 디스가 내놓은 기후 결의안을 거부함
- 이 결의안은 자산운용사 아문디(Amundi), 투자 및 보험 회사인 스코티시 위도우즈(Scottish Widows)와 같은 자산 관리 규모가 4조달러(약 5458조원)에 이르는 27개 투자자 그룹의 지지를 받음
- 그러나 총회에서의 투표 결과 이 결의안은 18.62%의 지지를 받는데 그침
- 이와 반대로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4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하향 조정한 셸의 결의안은 78.2%의 지지를 얻음

(임팩트는 2024.5.23) 유미지 기자

1. LS, 영국에 세계 최대 '초고압케이블 공장' 건설 나선다

- LS가 영국의 세계 최대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재생에너지의 본고장인 유럽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분석이 나옴
- 29일 업계에 따르면, LS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과 합작회사 'LS에코어드밴스드케이블'을 세우고, 영국 북동부 타인항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HVDC 케이블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해럴드경제 2024.5.29) 김은희 기자

2. 한화, 美 청정 암모니아 생산시설 구축 추진

- 한화가 글로벌 수요가 높은 청정 암모니아 생산기지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주)한화 글로벌부문은 이네오스 나이트릴스와 미국 내 저탄소 암모니아 시설 구축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힘. 이번 협력은 저탄소 암모니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됨
- 양사는 미국에 연간 100만t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저탄소 암모니아 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 검토 결과에 따른 최종 투자 결정은 2026년, 사업 추진 시 상업 운영 시작은 2030년으로 예상됨

(파이낸셜뉴스 2024.5.29) 김영권 기자

3. HD현대오일뱅크, 코프로세싱 방식 바이오 연료 생산 인증 획득

- HD현대오일뱅크가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적용해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 제품 생산에 나선다고 28일 밝힘
- 코프로세싱은 기존 정유 설비에 석유 기반 원료와 동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임
- HD현대오일뱅크는 더 나아가 바이오 원료를 고도화 공정에 직접 투입해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예정임

(굿모닝경제 2024.5.28) 권상희 기자

4. 삼성, 토요타 앞서 전고체배터리 생산 선언... 中 SAIC, 2026년부터 양산 예정

-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인 SAIC 모터(상하이자동차)가 2026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시작함
- 중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홈(Autohome)에 따르면, SAIC그룹은 지난 24일 개최한 에너지 기술 컨퍼런스에서 내년부터 그룹 산하 자동차 브랜드에 전고체배터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자동차는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의 첫 번째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임

(M투데이 2024.5.27) 이상원 기자

5. SK에코플랜트, 이집트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정부 부지 할당 돌입

-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이집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아샤르크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태양광·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600만㎡ 규모의 부지 할당 작업에 돌입함
- SK에코플랜트는 중국 최대 국영 건설사 CSCEC(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함
- 양사는 태양광 500MW, 육상풍력 278MW 등 총 778M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함.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은 블루에너지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비롯한 250MW 규모의 수전해기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함

(더구루 2024.5.27) 홍성환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5.24(금) ~ 2024.5.30(목)

제공일시 2024 06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네 번째 공동 수소 프로젝트 승인... BMW, 에어버스, 미쉐린 등 참여

- EU가 본격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섬. 28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수소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해 최대 14억유로(약 2조714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동성(mobility) 및 운송 부문 배출량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가 네 번째 수소 부문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를 승인했음. IPCEI란 역내 경제 및 산업 성장,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 지원 프레임워크로 2014년 도입됐음. IPCEI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EU의 엄격한 국가 보조금 규정이 완화됨
- EU는 역내 단일시장 형성과 유지를 위해 EU 경쟁법을 도입해 회원국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은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역내 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됨
- 'Hy2Move'로 명명된 이번 IPCEI 프로젝트는 EU의 네 번째 수소 가치사슬 구축 프로젝트로, Hy2Tech, Hy2Use, Hy2Infra의 뒤를 잇고 있음
- Hy2Move는 수소 연료 사용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과 이동성 및 운송 부문 배출량 90% 감축을 목표로 함.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임
- 이번 프로젝트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참여국들은 최대 14억유로(약 2조714억원)의 공적 자금을 제공함. 여기에 33억유로(약 4조8828억원)의 민간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임
- 개별 기업에 대한 원조는 필요한 적정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해 추가적인 순수익을 창출할 경우 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회원국에 반환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IPCE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1개 기업이 13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참여 기업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음. 참여 기업들은 EU 전역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200개 이상의 조직과 간접적으로 협력하게 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는 2031년경 완료될 예정이며, 3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업 에어버스(Airbus), 독일 자동차기업 BMW, 프랑스 타이어 제조회사 미쉐린(Michelin) 등이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수소 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시작한 이유는 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임.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그린수소 1000만톤을 역내 생산, 1000만톤은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블룸버그는 유럽의 그린수소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패할 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천연가스 발전소만 남아 과거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임팩트는 2024.5.30) 이재영 기자